

<2025년 다해>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

밀라노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준 비

※ 전례 봉사자

- * 해설자: 전례위원 1명
- * 독서자(예물봉헌): 정지원 클라라(제1독서), 윤상돈 알렉산드로(제2독서)
- * 보편 지향 기도: 김산영 울리아, 김효경 릿타
- * 복사: 김익찬 암브로시오, 정아인 레나(주·부복사와 향복사를 함께 담당)
- * 발씻김 대상자: 총 12명(2025-26 사목위원 외)
- * 발씻김 예식 봉사자: 의자 셋팅 및 대야 옮길 사람 2~3명

※ 준비 (장소 및 내용)

- * 제의실: 제의(흰색), 향(향로, 향합), 물(가능하면 미지근하게 데울 수 있도록), 주전자와 대야(대야는 바꿀 수 있도록 2개 이상 준비한다), 수건(발씻김 대상자 개인 지참)
- * 해설자: 주님 만찬 성목요일 예식서(프린트)
- * 제 대: 초 6개(주일과 동일), 성주간·파스카 성삼일 예식서(제대용), 딱딱이(나무로 된 것), 어깨보(주수상 옆)
- * 제단앞: 의자 12개(미사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 둘 것)
- * 주수상: 두 곱절의 넉넉한 제병(200개), 대제병 4개

※ 시작 전 준비사항

- * 발씻김 예식 대상자들의 자리를 미리 정해두어 예식에 혼선이 없도록 한다.
- * 제병은 그 다음 날(성 금요일 주님 수난 예식)에도 모실 수 있도록 넉넉히 준비한다(대제병은 4개).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저녁 미사

미사 시작 5분 전에 복사(향로,향합)와 주례사제는 제의실에서 미사 준비를 한 뒤 성전 입구로 간다. 시간이 되면 해설자가 안내한다.

▶ 해설: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거행하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 저녁 미사는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으로 당신의 몸과 피를 하느님 아버지께 봉헌하셨음을 기념하는 미사입니다. 또한 이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며 그들에 대한 크나큰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이 미사를 통해 성체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새 계명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미사 중에 사순 시기 동안 절제하며 모은 이웃돕기 성금이 있겠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입당 성가 _____ 66번 _____ 을 노래하겠습니다.

입당 성가와 함께 주례사제는 복사와 함께 중앙 통로로 행렬하여 입당한 후 제대에 분향을 하고 다음과 같은 말로 신자들에게 권고한다.

인사와 권고

- + 빵과 포도주의 표지 안에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주례사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신자들에게 권고한다.

- +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현존하심을 기념하는 잔치를 거행합니다. 당신의 몸을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만찬 미사를 통하여 서로를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도록 은총을 청하며, 감사와 찬미의 제사이며 잔치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참회

주례사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자비송을 함께하는 참회를 할 수 있다.

- + 당신의 생명과 온 몸을 성체성사로 내어주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겸손한 자세로 저희의 발을 씻어주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사랑의 희생제사를 영원히 기념토록 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 ◎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대영광송

대영광송은 주례사제의 선창을 시작으로 오르간의 화려한 연주와 함께 장엄하게 펼쳐진다. 반주자가 화려한 연주를 하는 동안 주복사는 종을 친다.

대영광송이 끝나면 주님 부활 대축일 파스카 성야 전까지는 종과 오르간을 사용하지 않으며 성찬 전례 시에도 종을 치지 않는다.

본기도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

◎ 아멘.

말씀 전례

제1독서 <파스카 만찬에 관한 규칙>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2,1-8.11-14

그 무렵 ¹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²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³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⁴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⁵ 이 짐승은 일 년 된 흠 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⁶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⁷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⁸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¹¹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매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¹²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¹³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¹⁴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116(115),12-13.15와 16ㄷㄹ.17-18(◎ 1코린 10,16 참조)

화답송은 반주 없이 또는 작은 반주로 성가대에서 부른다.

- ◎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갹으리오?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
-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 주셨나이다. ◎
- 주님께 감사 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

제2독서 <여러분은 먹고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11,23-26

형제 여러분, ²³ 나는 주님께에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²⁴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⁵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⁶ 사실 주님께에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 하느님, 감사합니다.

2독서가 끝나면 복사들은 주례사제 앞으로 와서 분향을 준비한다.

복음 환호송

요한 13,34 참조

복음 환호송은 반주 없이 반주자의 첫 음만으로 노래한다.

-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3,1-15

¹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²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³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⁴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⁵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⁶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에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⁷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⁸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⁹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¹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다.” ¹¹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¹²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¹³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¹⁴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¹⁵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론

복음 선포 후에 사제는 강론을 한다. 강론에서 이 미사로 기념하는 중요한 신비들, 곧 성찬례와 사제직의 제정, 형제 사랑에 관한 주님의 계명을 풀이한다.

발 씻김 예식

강론이 끝난 다음에 주례사제는 발 씻김 예식을 거행한다. 봉사자들은 의자를 미리 정해놓은 곳에 배치해두고, 발씻김 예식 대상자들은 각자 수건을 가지고 와서 자리에 앉는다. 예식을 준비하는 동안 해설자는 아래의 해설을 한다.

▶ 해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 주례 사제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며 실천하신 이웃 사랑과 봉사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도록 합시다.

예식이 거행되는 동안 성가대에서 ‘내 발을 씻기신 예수’를 노래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은 주전자와 대야를 준비하고 사제 옆에 위치한다. 적당한 때에 주전자를 바꾸어 물이 모자라지 않도록 하고, 대야도 물이 차면 적당한 때에 빈 것으로 바꾸어 준다.

발 씻김 예식이 모두 끝나면 예식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제대를 향해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간다. 봉사자들은 의자를 다시 원위치로 정리하고 주례사제는 제의실에서 손을 씻고 제대로 올라와 보편지향기도를 안내한다.

보편 지향 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만찬을 기념하고 재현하는 교회를 굽어살피시어, 스승이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화의 샘이신 주님, 남북으로 나뉜 저희 겨레를 굽어보시어, 진실로 화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다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3.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보호자이신 주님, 삶의 자리에서 갖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살피 주시어, 하늘 나라의 희망을 간직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4.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주님의 작은 교회인 가정 공동체에 은총을 내려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사랑을 실천하며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

성찬 전례

제대와 예물 준비

독서자의 예물 봉헌(제병, 주수병)이 끝나면 해설자는 이웃돕기 성금을 안내한다.

▶ 해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이웃돕기 성금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봉헌하는 동안, 성가 _____ 167번 _____ 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물 준비 기도

예물 기도

+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감사 기도

감사송 <성찬감사송1 : 그리스도의 제사와 성사>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광 함께.
-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 +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구원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해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노래는 오르간 반주 없이 한다.

‘거룩하시도다’가 시작되면 복사들은 향로에 향을 넣어 분향을 준비하고, 향로 복사가 제대 중앙 난간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가 주례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들어보일 때 분향한다.

영성체 예식

하느님의 어린양

하느님의 어린양 이후 주례사제가 성합을 들고 제대 앞으로 나오면 해설자는 안내한다.

▶ 해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몸을 모시는 동안 성체성가 _____ 163번 _____ 을 부르겠습니다.

영성체가 끝나면 다음 날을 위하여, 남은 성체는 성합에 담아 제대 위에 모셔 둔다. 사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친다.

영성체 후 기도

-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옮겨 모심

전례위원은 영성체를 하고 곧바로 제의실로 가서 '제의 깔아놓는 곳'에 성체포를 펼쳐놓음으로써 임시감실을 만든다. 성체포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다.

해설자는 주례사제의 영성체 후 기도가 끝나면 아래의 해설을 한다.

- ▶ 해설: 최후 만찬이 끝난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겿세마니 동산에 올라가셔서, 변민을 비롯하여 배반, 체포, 모욕, 매맞으심, 사형선고, 십자가의 고통 등 온갖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수난 여정에 참여하는 뜻으로 거룩한 무덤이라고 불리는 '수난 감실'로 성체를 옮겨 모시고 철야 성체조배를 합니다. 우리도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는 주님 말씀의 요청에 따라 고통을 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자신과 세상의 죄를 뉘우치고,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사랑의 대화를 주님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를 바치고 나서 주례사제는 복사와 함께 제단 아래로 내려와 향로에 향을 넣고 축복한 다음 무릎을 꿇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께 세 번 분향한다. 향합 복사는 분향이 끝나면 주례사제에게 흰색 어깨보를 씌워 드리고 제대 초 하나를 든 후 제단 아래에 선다.

어깨보를 두른 주례사제가 제대에 놓인 성합을 어깨보로 감싸들고 제단 아래(성체분배 하는 곳)로 내려가 서면 향로 복사는 성체께 분향한다.

이후 주례사제가 성전 중앙 통로에서 그리고 성전 입구에서 각각 멈춰서면 향복사는 그때마다 성체께 분향한다. 성전 입구에서의 분향이 끝나면 주례사제와 복사는 옆 통로를 통해 제의실으로 이동하고 성체를 임시 수난 감실(제의 깔아놓는 곳)로 모신다.

그다음에 향로에 향을 넣고 무릎을 꿇고 성체께 분향한다. 침묵 가운데 잠깐 조배하고 나서 사제는 복사들과 함께 깊은 절을 한 다음 성전 안 신자석(해설자석)으로 들어온다.

주례사제가 제의실(임시 감실)로 들어간 뒤 다른 사제가 제대를 치우는 동안 해설자는 아래의 해설을 한다.

- ▶ 해설: 지금 사제는 제대 위에 모든 것을 치우면서 비록 침묵 중이지만, 겿세마니 동산에서 외로이 계시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도록 호소합니다. 우리 죄많은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과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주례사제가 신자석으로 와서 성체조배 준비를 마치면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 ▶ 해설: 이제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를 모두 마치고 곧 이어 성체조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례사제의 인도로 신자들과 함께 성체조배를 시작한다. 성체조배가 끝나면 주례사제는 임시 수난 감실에서 성체를 감실로 모신 뒤 제의방으로 퇴장하고 해설자는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

- ▶ 해설: 이것으로 오늘의 모든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단식과 금육의 날인 내일 주님 수난 성 금요일 전례는 20:00 에 시작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